

四七論辯에 있어서의 退·高의 입장**

友枝龍太郎*

• 目 次 •

I. 문제의 소재	V. 退溪의 의견(二)
II. 高峯의 의견(一)	VI. 爛熳而同歸
III. 退溪의 의견(一)	VII. 聖學十圖 第六心統性情圖
IV. 高峯의 의견(二)	

I. 문제의 소재

老儒 퇴계(1501~70)와 少壯氣銳의 제자 고봉(1527~77) 사이에 행하여진 사단칠정에 관한 논변은 퇴계 59세, 고봉 33세 때에 개시되어 실로 8년의 긴 세월에 걸치는 것이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 논변을 통하여 퇴계·고봉 각자의 所論의 핵심을 탐구하고 양자의 입장이 어떠한 것이었던가를 밝혀 보고자 한다.

II. 高峯의 의견(一)

四七論辯의 발단은 퇴계가 鄭秋巒 天命舊圖의 『四端發於理 七情發於氣』條를 개정하여

* 전 廣島大 교수(작고)

**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제19호(1978) 게재논문

四端之發純理 故無不善 七情之發兼氣 故有善惡 (退溪全書1 403頁 高峯全集 145頁)

이라고 하였다고, 己未 59세 정월에 고봉에게 책을 보낸 데서부터 시작된다.

33세의 고봉은 우선 퇴계의 개정에 경의를 표하면서도, 퇴계·秋巒의說을, 사단을 理에 걸고 칠정을 氣에 거는 것이라고 하여, 己未 3월에 반론의 책을 퇴계에게 보냈다.

고봉은 人心의 未發은 性이고 氣發은 情이며, 性은 善이나 情에는 善惡이 있다고 하고서는 子思中庸의 喜怒哀樂의 未發已發은 전체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나 맹자의 사단은 그 情의 善한 부분을 剔撥하여 말한 것이므로, 『非七情之外 復有四端也』라고 한다. 고봉에 있어 사단과 칠정은 別物이 아니고, 사단은 칠정의 일부분으로 칠정에 포섭되어 있으며, 사단과 칠정은 부분과 전체의 관계가 된다. 따라서 『四端發於理 七情發於氣』라고說한 경우에는 『理與氣判而爲兩物』 『七情不出於性 而四端不乘於氣』하게 되어 사단과 칠정을 다함께 理氣의 兪힘으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또 퇴계와 같이 『四端之發純理 故無不善 七情之發兼氣 故有善惡』이라고 개정하였다 하더라도 전자를 純理, 후자를 兼氣라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고봉은 말한다. 그것은 사단은, 性이 갓 발동하여 氣가 用事하지를 않고 본연의 性이 그대로 한 순간에 수행되어 가는 경우이며, 순수한 천리의 발동이긴 하면서도 이 또한 칠정 밖에 나아가는 것은 아니고, 칠정 속에서 『發而中節』하는 것의 苗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봉도 理와 氣에 대하여 『理 氣之主宰』 『氣 理之材料』라 하여 우선 이것을 분간하지만, 理氣가 事物에 있는 경우에는 混淪하고 있어 分開될 수 없다 하여 이것을 合看하고, 다만 理는 약하고 氣는 강하며 理에는 朕(자취)이 없고, 氣에는 跡(자취)이 있으므로 流行發現에 있어서는 過不及이 생긴다고 한다. 따라서 칠정의 발동에는 선과 악이 있으며,

선한 것은 『天命之本然』이고 악한 것은 『氣稟의 過不及』이 되는 것이다. 칠정의 발동에도 천명의 본연에 근거하는 선한 것이 있으므로 사단칠정의 본질에 二義는 없다. 그리하여

理之不外於氣 而氣之無過不及 自然發見者 及理之本體然也

라고 하고 있다.

고봉은 퇴계·추만의 四端七情理氣分說에 대하여, 이것을 理氣性情的 얽힘으로 설명하고, 사단칠정론의 논리적 整合性을 구한 것으로 생각한다. 朱子의 已發未發說은 心 의식의 속깊이에 그 탐구의 손길을 뻗쳐 未發의 存養과 已發의 省察을 설명하고 주체적 體認을 중히 여기는 것이었는데, 젊은 고봉에게는 이 점이 缺하여 있다. 그는 사단칠정과 道心人心의 얽힘을 거부하고

論人心道心 則可如此說 若四端七情 則恐不得如此說

이라고 설명한다. 『如此說』이란 『純理와 兼氣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며, 고봉은 자기의 사단칠정의 性情論으로부터 體認體察의 문제에 관련되는 道心人心論을 끊어내어 버리고 있다. 고봉의 사단칠정론은 心論을 끊어내어 버리고 있다. 고봉의 사단칠정론은 人間性情의 객체적 분석이며, 사단칠정을 통하여 보이는 心 意識의 구조에 관한 논리적 정합성의 추구이다. 33세의 젊은 고봉에 있어서는 마땅히 그리하여야만 할 일이고 그 논리구성의 예리함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人心道心の 모순갈등을 주체적으로 體認體察한다고 하는 心術隱微之間의 공부의 문제가 전혀 취급되어 있지 않다. 고봉은 사색의 면에 있어 뛰어나고 있는 듯하나, 젊음 때문인지 體認體察의 면은 아직 여기에 수반되어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以上 兩先生 四七 理氣往復書 上篇. 高峯全集 247頁 참조).

Ⅲ. 退溪의 의견(一)

퇴계가 고봉의 책을 보고 이에 반론한 것은 59세의 10월이며 소위 『答奇明彦論四端七情第一書』이다.

퇴계의 설에 대하여 고봉은 이것을 理와 氣가 두 개가 되고, 性과 情의 관련이 없어진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壯年時로부터 이미 心經附注를 숙독하고, 性理大全에서 얻은 바 있었으며, 또 延平答問에 跋하고 朱子書節要를 논한 老儒 퇴계에 있어서는 理氣不雜不離의 離合間이 이해되어 있지 않았을 이가 없다. 우선 四七論辯을 야기한 天命圖說에 대하여 보더라도 퇴계는, 그 가운데의 『天命之圖』는 周子の 『無極二五妙合而凝』에 해당하고, 『心性之圖』는 周子の 『惟人也得其秀而最靈』에 해당하고, 『사단칠정』은 周子の 『萬事出矣』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가 天命圖說 가운데의 사단칠정을 논함에 있어서 그것이 『理氣妙凝』 가운데 있어서의 변별이라는 것은 퇴계가 숙지하고 있는 바이다. 그는

理之與氣 本相須以爲體 相待以爲用 固末有無理之氣 亦末有無氣之理 然而所就而言之不同 則亦不容無別

이라고 설명하는 것도 까닭 없는 것은 아니다. 理氣共在는 理氣妙凝의 合看이며 사단칠정의 不同·別은 理氣의 離看인 까닭이다. 그리하여 퇴계는 性에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 나뉘어 설명될 수 있듯이 사단과 칠정도 사단은 純理·善, 칠정은 兼氣·有善惡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惻隱·羞惡·辭讓·是非의 사단은 仁義禮智의 性으로부터 한순간에 발현하나, 喜怒哀懼愛惡欲의 칠정은 外物이 인간의 육체에 접촉하여 마음 속에 이같은 감정이 움직이므로 外物外境의 촉발에 의한 감정의 발현이기 때문이다. 물론 측은지심이 생기는 경우 우물에 빠지려는 赤子 즉 외물의 촉발에 의한 것임은 틀림없다. 다만 喜怒哀懼 등의 칠정의 발현의 경우에는 外界의 자극촉발이 우리들의 감

성에까지밖에 도달하지 않으나, 惻隱 羞惡등의 사단의 발현의 경우는 자극축발이 우리들의 감성의 깊이에 잠재하는 이성에게까지 도달하여, 深奧의 이성을 흔들어 움직여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감정이라고 퇴계는 보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는

四端之發 孟子既謂之心 則心固理氣之合也 然而所指而言者 則主於理何也 仁義禮智之性 粹然在中 而四者其端緒也 七情之發 朱子謂本有當然之則 則非無理也 然而所指而言者 則在乎氣何也 外物之來 易感而先動者 莫如形氣 而七者其苗脈也

라고 설명한다. 이것이 퇴계의 主理·主氣의 설인데 이것은 理氣妙凝·理氣共動을 전제로 하여 그 발동의 주체가 理에 있느냐 氣에 있느냐에 따라 사단과 칠정을 分說한 것으로, 理氣共動하는 가운데의 주동자의 여하에 의한 구별이다.

이와 같은 퇴계의 견지에서 본다면, 氣가 자연히 발동하는 것은 理의 본체가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고봉의 설은 理와 氣를 一物로 보는 것으로 羅整庵의 설과 같은 것으로 되어지며, 분석을 싫어하여 합하여 一로 해서 설명하는 고봉의 입장은 『鵲圖吞棗』로서 대추를 씹바르지 않고 삼키는 것이며

駸駸然入於理氣論性之弊 而墮於認人欲作天理之患矣

라고 경고한다. 그리하여 이 말의 뒤에 朱子語類 53 孟子四端에 관한 1條 『四端是理之發 七情是氣之發』을 인용하고 自說이 朱說에 어긋나지 않음을 보이고서 반론을 마치고 있다(이상 退溪全書1 405~7頁 高峯全書 348~9頁 참조).

퇴계나 고봉이나 理氣의 不雜不離를 설명하는 점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異同이 없다. 다만 고봉이 理氣의 共在共動을 역설하여 사단과 칠정이 다같이 동일한 성격의 것으로 그 相異는 부분과 전체의 相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하여, 퇴계는 理氣共在共動이기는 하나 사단의

경우에는 그 주동자가 理이며 칠정의 경우에는 그 주동자가 氣라는 것을 주장하여 사단칠정의 이질성을 보려고 한 점에, 두 사람 사이의 異同을 알 수가 있다.

사단과 칠정을 同質로 보느냐, 異質로 보느냐 하는 이 점, 道心人心 天理人欲論과의 관련이 그 관건이 되는 것이다. 고봉이 자기의 사단칠정론에서 天理人欲論을 끊어버리고 있는 데 대하여 퇴계는 고봉의 결점을 써바르지 않고 대추를 삼키는 것이라 하고, 氣를 가지고 性을 논하고 人欲을 天理와 錯認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점, 퇴계가 이 반론의 書라고도 할 수 있는 書翰에서

高明之學 有見於正大廣博之域 而或未融貫於細密情微之蘊也 其處心制行 多得疎達曠坦之意 而尙缺於收斂定之功也 (退溪全書1 403頁 答奇明彥)

라고 말하는 것도, 心術隱微한 사이의 存養省察 天理人欲의 변별에 대한 고봉의 미숙을 찌르고 그 주체적 體認의 부족에 반성을 재촉한 것이다.

퇴계는 사색으로 따져들어감과 함께 또 한편으로 그 자신의 體認體察에 호소하여 理氣共在共動의 사단칠정에도 각각 主理主氣의 구별이 있음을 확신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心 의식의 내부 깊숙히 파내려가면 갈수록 天理人欲 문제의 어려움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도산에 들어앉아 있었던 퇴계의 공부의 정도가 느껴진다. 이에 대하여 고봉은 사색으로 따지고 머리로 따져 天理人欲論을 끊어버리고 사단칠정론의 논리적 정합성을 구하였다. 여기에 우리는 老儒 퇴계와 少壯氣銳의 제자 고봉의 각각의 특색을 찾아 볼 수 있다.

IV. 高峯의 의견(二)

고봉이 퇴계의 前書에 답한 것은 그 翌年 고봉 34세, 퇴계 60세의 8월이다. 고봉은 퇴계의 前說을 12절로 나누어 반론하고 있으나 各節間

의 반론에 중복이 있으며 錯雜해 있으므로 그 요점을 표시하면

- 一. 사단은 理氣妙合한 가운데 純理·善을 뽑아서 말한 것이며, 칠정은 理氣妙合渾淪하여 理氣를 겸하고 선악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단도 칠정도 理氣의 엄함이 있는 점에서 동질인 것이며, 다만 부분과 전체의 相異가 있을 뿐이므로, 양자의 본질에 있어 두 가지 뜻이 없다.
- 一. 사단과 칠정을 理와 氣에 分屬시키고 있으나, 사단에도 氣가 있으며 칠정에도 理가 있다. 사단과 칠정을 理와 氣에 分屬하면 兩情二善이 있는 것이 된다.
- 一. 『氣가 자연히 발현하는 것은 理의 본체가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理氣의 離合하는 것을 말한 것으로 氣로서 性을 논하여 氣=理로 한 것은 아니다. 羅整庵의 설은 아직 보지 않고 있으니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
- 一. 나는 공부를 缺하고 反身體察의 功驗이 없다. 그러나 인욕을 天理로 인정하는 蔽가 있다고 한다면 深察克治하지 않으면 안된다.
- 一. 朱子語類의 『四端是理之發 七情是氣之發』이라 한 설은 偶發偏指한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로 된다. 그리고 또 그는 그 後論에서 情에 대하여 세밀하게 논하면 사단이 발현하는 경우에도 중절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여, 그전에 사단은 칠정 중의 선한 것을 뽑아내어 말한 것이라고 하는 自說과의 모순을 犯해 가면서까지도 자기의 性情論의 논리적 整合性을 피하고자 하고 있다(이상 高峯全集 249~260頁 참조).

V. 退溪의 의견(二)

퇴계는 고봉의 條辯을 받고서 곧장 이에 답하여 소위 『論四端七情第二書』를 발송하고 있는데 고봉이 이것을 受領한 것은 同年의 11월이었다(高峯全書 165面, 273面). 퇴계는 고봉의 의견을 받아들여 前書의 표현상의 불충분한 점 7개의 곳을 수정하여 改本을 만들고 또 고봉의 條辯에 대하여 『근본은 같으면서 趨向이 다른 것』 8條, 『견해가 달라

끝내 따를 수 없는 것』 7條를 들어 자기의 견해를 명시하고 있다. 이 반론도 하나 하나 서술해 나가면 너무 길어지므로 앞에 요약한 고봉의 論에 대응시켜 표시하면

一. 인간의 一身은 理와 氣가 합하여 생긴 것으로 理와 氣가 서로 發用하여 각각 主로 하는 바가 있다. 사단은 『理發而氣隨之』하는 것으로 理氣相須하는 그 연관 속에서 理를 主로 하여 말한 것, 칠정은 『氣發理而乘之』한 것으로 똑같이 理氣의 兪힘속에 氣를 主로 하여 말한 것이다. 四·七의 同處를 논하면 貴說과 같은 것이 되니 四七의 二者를 對學互言하여 主로 하는 바에 대하여 그 발동의 주체를 추구하면 理와 氣의 구별이 있으며 이것이 異處이다.

一. 나는 사단칠정을 理氣에 분속시켜 설명하는데, 이것은 理가 氣의 밖에 있으며 氣가 理의 밖에 있다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또 兩情二善의 비판에 관하여 사람들이 이것을 錯認할 염려는 없다고 생각하나 天命圖에서는 朱子の 설을 취하며 『四端是理之發 七情是氣之發』로 하고 싶다.

一. 貴說과 羅整庵의 설을 同視해서 論한 것은 나의 錯認이며 이 점은 이미 개정하였다.

一. 朱子語類의 『理之發』 『氣之發』은 朱門의 제1인자 輔漢卿의 기록으로 朱子로부터 漢卿으로의 『單傳密付之語』이며 가히 믿어야만 할 것이다.

로 된다. 여기서 주목하여야만 할 것은 퇴계가 고봉의 학설을 가능한 섭취하여 자기의 설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퇴계와 고봉의 연령의 차는 현재로 말하면 정년퇴직 전의 노교수와 少壯의 助手講師정도의 간격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계는 自說의 差失에 대하여

口耳之學 無得於心 而揣摩以爲說 所以失於稱停 而有病痛 此深可恐懼也

라 하여 표현에 어딘가 어색하여 안정감이 없는 것은 마음의 體得體認의 부족 때문이라 하여 반성을 가하고 있다. 우리들은 여기에 사색과 體認에 대한 퇴계의 眞摯하고도 겸허한 태도를 볼수 있다. 퇴계는 항상

자기의 체험에 반성을 가하여 사색을 진전시키고, 고봉의 설을 감싸안듯이 해가면서 自說을 수정해 나갔다. 특히 그가 사단을 『理發而氣隨之』라 하고, 칠정을 『氣發而氣乘之』라 하여 설명하는 부분은 고봉의 설과 종전의 自說을 止揚한 것이라 하여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표현은 理氣의 얽힘 속에 있어서의 사단칠정의 특질을 잘 설명해낸 것이 있기 때문이다(이상 退溪全書1 42面~ 424頁 高峯全書 260~272頁 참조).

VI. 爛熳而同歸

그 후 고봉은 또 장편의 반론을 하고 퇴계는 간단하게 이에 답하고 있는 樣相을 보였는데 퇴계 66세, 고봉 40세에 『卒爛熳而同歸』하였다. 고봉도 不惑에 달하였기 때문이었는지, 자기의 體認省察의 문제를 써 넣어 퇴계의 설에 贊意를 표시하였다. 그는 말한다.

四端只是理之發 孟子之意 正欲使人擴以充之 則學者於四端之發 可不體認以擴充之乎 七情兼有理氣之發 而理之所發 或不能以宰乎氣 氣之所流 亦反有以蔽乎理 則學者於七情之發 可不省察以克治之乎 此又四端七情之名義 各有所以然者 學者苟能由是以求之 則亦可以思過半矣 (高峯全集 285頁 四端七情總論)

라고. 나는 고봉의 體認성찰의 깊이가 퇴계의 견해와 일치하여 퇴계로 하여금 『始參差而異序 卒爛熳而同歸』라고 말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퇴계는 장년 때로부터 心經附注를 읽었으며, 朱說의 수용에 있어서도 存養省察하여 心 의식의 내면으로 파내려서 體認한 사람이었다. 그가 61세때 諸友에게

『臥雲庵裏存心法 觀善齋中日用功 要識講明歸宿處 請將踐履驗五躬 (退溪全書1 117頁)

이라고 읊은 것은 그 학문의 핵심을 말한 것이다.

VII. 聖學十圖 第六心統性情圖

聖學十圖는 퇴계 68세의 所作이며, 그 제6 心統性情圖의 中圖·下圖에는 退溪四七論이 요약되어 보여지고 있다. (退溪全書1 204頁 日本刻本全集 258頁)

이 圖의 中圖에 대하여 퇴계는

其中圖者 就氣稟中 指出本然之性 不雜乎氣稟而爲言 子思所謂天命之性 孟子之所謂性善之性 張子所謂天地之性是也 其言性旣如此 故其發而爲情 亦皆指其善者而言 如子思所謂中節之情 孟子所謂四端之情 程子所謂何得以不善名之之情 朱子所謂從性中流出元無不善之性是也



라고 하여 본연의 性情이라고 할 만한 것을 氣稟 가운데서 剔出해서 들

어 『其并氣而言 則無以見性之本善』이라고 한다. 이것은 純粹性情의 정립이며 이 純粹性情에의 퇴계의 신뢰성이 人欲을 天理天理로 인정하는 설에 대한 저지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그리고 이 中圖는 四七論辯에서 본연의 性에 상응해서 본연의 情을 설명한 것의 전개이다.

또 下圖에 대하여 퇴계는

其下圖者 以理與氣 合而言之 孔子所謂相近之性 程子所謂性卽氣卽性之性 張子所謂氣質之性 朱子所謂雖在氣中氣自氣 性自性不相夾雜之性是也 其言性既如此 故氣發而爲情 理發而氣隨之 自純善無惡 必理發未遂而揜於氣 然後流爲不善 七者之情 氣發而理乘之 亦無有不善 若發不中而滅其理 則放而爲惡也.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고봉의 설이 많이 흡수되어 있다. 中圖가 純粹性情의 정립인데 대하여 下圖는 理와 氣를 합해서 설명하는 現實態에 있어서의 性情善惡의 두 양상의 제시이며 여기에 存養性察의 문제가 매우 결부되어 있다. 퇴계가

要之 兼理氣統性情者心也 性發爲情之際 乃一心之幾微·萬化之樞要 善惡之所由分也 學者誠能一於持敬 不味理欲 而尤致謹於此 未發而存養之功深 已發而省察之習熟 眞積力久而不已焉 則所謂情一執中之聖學 存體應用之心法 皆可不待外求而得之於此矣.

라고 결론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心統性情圖의 中下圖에 四七論辯의 결론을 볼 수가 있다. 퇴계가 젊은 고봉의 의견을 받아들여 自說의 전개를 피한 곳에 우리는 퇴계의 겸허함과 위대함을 발견하고 敬仰의 念을 금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또한 퇴계의 四七論辯에서 느껴지는 것은 그가 『理之發』, 『理發』을 말하여 理의 발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의 歿年の 『物格』의 문제 『無極而太極』의 문제에 있어 『理動』의 입장이 다시 展用되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다시 새로이 붓을 들고자 한다.

(안 병 주 譯)